



개천절 계기 교육

인문사회부

2022년 10월 3일, 제 4354 주년 개천절

민족사의 출발을 경축하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즉, 단군 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國祖) 단군(檀君)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을 건국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國慶日)입니다. 3·1절(三一節), 광복절(光復節), 제헌절(制憲節),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10월 3일에 해당합니다. 통상 단기(檀紀)에서 한 해를 뺀 수로 횡수를 계산하는데, 단기 4355년인 2022년의 개천절은 제 4354 주년 개천절이 됩니다.

개천절은 본래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천제(天帝) 환인(桓因)이 **홍익인간(弘益人間)**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그 아들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하고, 환웅의 아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민족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천(開天: 하늘이 열림)**이라 함은 최초의 인간공동체인 신시를 열고 첫 국가 고조선을 건설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테면 민족의 탄생이나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개천절의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말을 거쳐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 이 단군의 자손 의식이 대중화하면서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동력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조선 말**에 대종교는 이 같은 인식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 개천절이라는 이름의 제례(祭禮)를 자기들의 종교의례 속에 포함 시켰습니다. 대종교는 개천절을 고구려(高句麗)의 동맹(東盟), 부여(夫餘)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과 같은 고대의 제천 행사와 같은 연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개천절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데는 국학파 학자들과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계몽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정부는 그해 음력 10월 3일에 국무원 주최로 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이라는 이름의 기념행사를 지냈는데, 1920년대 중반에는 건국기원절보다는 개천절이라는 이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개천절 행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개천절이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일제가 경계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구성되면서 통합 기제의 한 축으로 국가의 제도 의례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개천절이 국경일로 제정되고,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으로 지정되며, 단군기원(檀君紀元: 단기)이 정부의 공식 연호로 지정된 것 등이 그것입니다.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음력 10월 3일에 열렸던 개천절이 양력 10월 3일로 고정**되었습니다. 서구화가 진전되면서 단기가 서기(西紀)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경일 개천절은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과 함께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북한**에서도 개천절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3년에 단군릉에서 5,000여 년 전의 단군 유골을 발굴했다는 학술 보고를 내놓은 후,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으로 실증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남북한과 해외의 동포들이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정체성과 자긍심에 토대하여 단결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개천절을 기념하는 가장 쉽고 의미 있는 방법은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경축일을 기념해서 다는 경우 당일 07:00부터 18:00까지 다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현중학교 학생들 모두 개천절을 기념하여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아봅시다 ~~ *^^*

- 인용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자료